

3·6·9 특집호로 체험학습 관련도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집 첫 번째로 3호에서는 **궁궐 체험 학습**시 활용할 수 있는 도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궁궐 관련 학습 및 체험 학습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발행될 6호에는 **박물관 체험학습** 관련도서, 9호에는 **유적지 체험학습** 관련도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 아시지요? 유익한 체험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체험학습 특집으로**

궁궐 관련 도서를 추천합니다.



궁궐 관련 도서

서지사항	책소개
하루에 돌아보는 우리 궁궐 / 손용해 외 글/심가인 외 그림/주니어 김영사/2010	궁궐 체험학습 종합선물세트 같은 책이다. 조선의 5대 궁궐 중 경희궁을 제외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가까이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운현궁까지 5개 궁궐을 그림과 사진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궁궐의 곳곳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궁궐과 관련된 역사적 에피소드까지 같이 설명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사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자회사인 스쿨김영사에서 나온 신나는 체험학습 시리즈를 보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길따라 떠나는 타임머신 5대 궁궐 여행/이재영 외 지음/이비락/2008	주말마다 궁궐에서 우리궁궐 길라잡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 4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좀 더 즐겁고 유익한 궁궐 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책이다. 서울의 5대 궁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경희궁의 곳곳의 역할, 관련된 역사적 사실 등을 풍부한 사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본론에 들어가기 전 궁궐이란 무엇인지, 궁궐의 영역 등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더 유익하다.
임금님의 집 창덕궁 /최재숙 글/홍선주 외 그림/웅진주니어	조선의 5대 궁궐 중 창덕궁에 관한 그림책이다. 저학년 어린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궁궐 이곳저곳에 대한 설명을 동화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사진과 그림이 합성된 콜라주 형식의 그림으로 사실적인 지식 정보를 많이 전달하고 있기보다는 궁궐에서 왕과 왕비들이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한편의 동화를 읽듯 훑어볼 수 있는 책이다.
한 권으로 보는 조선의 다섯 궁궐이야기/황은주 지음/양은정 그림/그린북/2012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등 조선의 5대 궁궐에 대하여 다룬 책이다. 각 궁마다 특색과 숨어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실어 읽다보니 무척 재미있다. A3의 큰 판형으로 되어 있어 큼직한 사진 정보가 많아 이해하기 쉽다. 학생들과 궁궐 나들이를 가기 전에 읽고 간다면 많은 것을 보고 돌아 올 수 있을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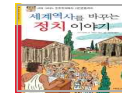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6학년 2학기 사회 관련 도서

1.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정치이야기 33/ 류은정 지음/을파소/2009



세계 역사를 바꾸는 정치이야기/ 소피 라무뢰 지음/양진희 옮김/상수리/2010



우리가 바꿀 수 있어/인권교육센터 들 지음/책읽는 곰/2012



재미있는 법이야기/편집부 엮음/가나출판사/2006

2.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나의 아틀라스 : 지도 들고 세계 한 바퀴/소니아 골디, 마리엘 마요 지음/최내경 옮김/마루벌/2010



어린이 아틀라스:지도로 배우는 세계의 문화와 자연/브누아 들라랑드르 지음/이희정 옮김/문학동네어린이/2006



꼬마 탐험가가 보는 지도책 시리즈(전8권)/ 카렌 포스터, 펠리시아 로 지음/김혜선 외 옮김/주니어랜덤/2009



재미있는 세계 지리 이야기/김영 지음/정경화 그림/가나출판/2007

3.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우리



나는 통일이 좋아요/정혁 지음/시은경 그림/대교출판/2010



(세상 보는 눈을 키워 주는)어린이 시사마당 2.정보와 인터넷/우리누리 글/이동철 그림/주니어RAK/2008



역사인물과 함께하는 교과서 원리캠프 7.문화 /곽영미 글/박진아 그림/씽크하우스/2008



우리 앞의 세계화 이야기/정희용 저/아이세움/2008

그밖에 궁궐 관련 책

1. 발도장 쿵쿵 역사 시리즈/최종순 외 지음/책교/2011
6권 가자 조선 건국-경복궁, 10권 가자! 조선 후기-운현궁과 인사동, 11권 가자 대한민국-덕수궁과 정동, 20권 가자 조선 궁궐-5대 궁궐
2. 고종황제와 함께하는 경운궁 이야기/여은희 외 지음/김상민 그림/문학동네/2002
3. 창덕궁 나들이/김이경 지음/김수자 그림/파란자전거/2007
4. 아름다운 궁궐 이야기/우리누리 지음/김형연 그림/주니어 중앙/2011
5. 경복궁에서의 왕의 하루/청동말굽 지음/박동국 그림/문학동네어린이/2003



1960년 경기도 오산에서 태어나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과학과와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광고디자인과를 졸업했습니다. 1987년에서 1992년 안양에서 지역미술운동을 했으며, 이 시기에 불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들 만희에게 보여 줄 그림책을 찾다가 직접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중국 북경에서 산수화, 공필화를 공부했고, 2005년과 2006년에 다시 불화를 공부했습니다. 현재 그림책 글을 쓰고 그림 그리는 일을 하며, 옛 그림의 미감을 그림책 속에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과 도구』의 저자소개 참고)



고양이와 함께 세상을 마주하다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권윤덕 지음/창비/2005년)

책의 첫장을 넘기자마자 시작되는 이야기에 ‘어?’하고 책장을 넘겨보면 타이틀 페이지가 나온다. 권윤덕은 욕심이 많은 작가인가 보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넣고 싶었는지 타이틀페이지 앞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녀의 책은 대부분이 이렇게 타이틀페이지 앞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게다가 이 페이지가 앞으로의 내용 전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책의 제목을 보고 ‘고양이와 아이가 신나게 노는 그림책이리라’ 생각하며 그림책을 펼쳤다. 그런데 신나는 그림책이 아니었다. 조그만 아이의 외로움이 진하게 풍겨져 나오는 외로운 그림책이었다. 마치 “시리둥둥 거미동동”에서 하루 종일 애타게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처럼 말이다.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시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어 외로운 아이에게 고양이 친구가 찾아온다. 고양이는 언제나 아이와 함께하며 신문지 밑에, 문 뒤에, 옷장 속에 숨기도하고 빨래를 널 때도, 꽃 냄새를 맡을 때도 항상 아이의 행동을 따라한다. 고양이는 만날만할 아이를 따라하지만 아이는 그런 고양이가 싫지 않다. 그렇지만 고양이와의 놀이만으로 아이는 만족하지 못하는 듯하다. 아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내 친구는 고양이밖에 없고 고양이 친구도 나밖에 없고”라며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몰고러미 쳐다본다.

캉캉한 방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 들러간 이불속에서 아이와 고양이는 하나가 된다. 두 면 가득 그려진 고양이의 눈동자, 아이의 눈동자, 이 부분이 이 책의 절정이다. 이제 아이는 고양이를 따라한다. 이제는 어두운 방,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고양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고양이와 함께 밖으로 나가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 마지막 장에 아이와 고양이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웅얼거린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다.

이 책에서는 아이들이 누군가의 행동을 따라하며 놀기 좋아하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아이와 고양이가 하나가 되고 아이가 고양이를 따라 하면서부터는 눈동자의 색깔도 달라진다. 참 흥미로운 부분이다. 또한 공간분할도 훌륭하다. 아이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문 앞에서 엄마 오는 소리가 들리는지 바깥에 귀 기울이는 장면에서 두 면을 사선으로 분할하여 평면 같은 1차원적 공간을 2차원의 공간으로 분할하였다. 그녀의 책들은 보면 볼수록 숨겨놓은 여러 가지 장치들에 저절로 감탄이 나온다. 마지막 장에 등장한 비둘기들도 보라. 마치 2편을 예고하는 있는 것 같다. 글만 읽고 가볍게 넘어가기는 아까운 권윤덕의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 마음이 외로운 친구들, 세상이 두려운 친구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책이다.

같은 주제 다른 책 - 외로움, 극복, 성장

- ★ 관참아! 혼자가 아니야/카트리제 마리에 굴다게르 글/살로테파르디 그림/박선주 옮김/푸른날개/2011
- ★ 고릴라/앤서니 브라운 글·그림/비룡소/1998



만희네 집
(길벗어린이/1995)



시리둥둥 거미동동
(창작과비평사/2003)



꽃할머니
(사계절/2010)



엄마, 난이 꽃이 좋아요
(길벗어린이/2010)



이야기 책과 지식정보 책의 경계에서

(일과 도구/권윤덕 지음/길벗어린이/2008년)

권윤덕의 여러 작품 중에서 ‘일과 도구’는 흥미로운 면이 있다. 우선 이 작품의 주인공 나와 양이(고양이)의 모습은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의 소녀와 고양이를 닮아있다. 또한 도입 부분의 우리 동네 지도는 이야기의 공간을 암시하던 ‘만희네 집’의 지도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일과 도구’에는 수줍은 마음에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던 어린 소녀도 가족과 우리 집이 최고의 관심사였던 어린 만희도 없다. 이 작품의 주인공 ‘나’는 한층 성장하여 이제 온 동네를 쏘다니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 참견하고 왕성한 호기심을 채워 가는 소녀로 등장한다. 때문에 이 책은 권윤덕 작품 속 주인공의 성장과 더불어 전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낸 작가의 성장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글과 그림’의 조화이다. 이 책에는 모두 7가지의 일에 필요한 도구들이 나온다. 화면에는 각각의 일마다 사용되는 도구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지만 글에는 도구 이름이 몇 개만 나온다. 그래서 글에 나와 있는 도구를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어린이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림과 글이 산만해지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이유이다.

이야기 구성도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나와 양이가 도구들을 잔뜩 구경하면서 이런 저런 궁금증을 떠올리고 나면 다음 장면에서 나는 자연스레 그 일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궁금증을 해결한다. 화면에서는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 등을 통해 도구의 쓰임새를 알기 쉽게 보여준다. 도구에 대한 궁금증을 통해 사람을 만났고 일과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을 보낸 나와 양이는 또 얼마만큼 자랐을까? 지식정보 책의 느낌도 풍기지만 ‘나’의 성장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화면 구성의 단순함이 그림의 화려함을 감싸 안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작가는 그림을 비단에 그렸고 고려 불화 기법에 따라 주로 주, 녹색, 군청을 비단 앞뒤로 여러 번 칠하며 색을 만들었다. 때문에 색감이 선명하고 각각의 도구를 세밀하게 묘사하여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한 그림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러한 화려함에 앞서 그림책 화면을 모두 프레임으로 처리하여 깔끔함을 더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나와 고양이인 양이가 예쁜 꽃신을 신고 나란히 걷는 모습은 지금까지 프레임 속에 들어 있던 사실적인 이미지들을 좀 더 환상적인 분위기로 마무리 하고 있다. 이 책이 ‘일과 도구’라는 다소 딱딱한 제목을 갖고 있음에도 마지막까지 지식정보 책으로 느껴지기보다 이야기 책으로 느껴지는 이유이다.

같은 주제 다른 책 - 이야기 책 & 지식정보 책

- ★ 라이카는 말했다/이민희 글·그림/느림보/2007
- ★ 짜장면 더 주세요!/이혜란 글·그림/사계절/2010



신시아 라일런트

1954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태어났으며, 그림책·시·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활발히 쓰고 있습니다. 1983년 이후 '칼데콧 상' 과 '뉴베리 상' 을 각각 두 번씩이나 수상하며 미국을 대표하는 어린이책 작가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리운 메이 아줌마』, 『조각난 하얀 십자가』, 『11월』 등이 있습니다.

(교보문고 작가 소개 참고)



이름은 존재감이다!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

/신시아 라일런트 글/캐스린 브라운 그림/김형건 옮김/보물창고/2004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이 생각나게 하는 신시아의 그림책이다.

친구가 필요한 할머니는 누군가의 편지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날아오는 것은 고지서뿐이다. 할머니보다 오래 산 벗이 없기 때문에 편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름 짓기를 시작한다. 그녀의 낡은 자동차는 '베치', 의자는 '프레드', 침대는 '로젠드', 그리고 집에는 '프랭클린'이라는 이름을 붙여 준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싫은 할머니는 자신보다 오래 살 무생물에게만 이름을 지어주며 존재감을 부여한다.

생명이 없는 사물과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던 할머니에게 어느 날 순해 보이는 갈색 강아지가 나타난다. 하지만 할머니는 배고픈 강아지에게 햄이나, 치즈 같은 먹을 것을 주며 돌봐 주기만 할뿐 이름을 붙여 주지는 않는다. 그 동안 새로 산 옷장에는 '빌', 외바퀴 손수레에겐 '프래신' 이란 이름을 붙여 주면서 말이다. 할머니는 그 개가 자신보다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감을 부여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할머니에게 이름은 그만 큼 특별한 것이며, 더 이상 소중한 것을 먼저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오던 개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할머니는 소식이 궁금하지만 선뜻 찾아 나서지 못한다. 날이 갈수록 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결국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 할머니! 그러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들과 사귄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닫게 되고 드디어 갈색 개에게 이름을 주어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이 그림책은 이름과 존재감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고, 어떤 사물이나 동식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보통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난 후 주변을 살펴보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보자. 또 내가 존재감을 붙여넣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이름을 붙여보고 마음껏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



읽기 포인트

- 할머니, 할아버지의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며 읽기
- 마지막에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여 주면서 할머니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물건의 이름 짓기 활동을 통해 책의 재미를 살릴 수 있음

같은 주제 다른 책 - 존재감

- ★ 내 이름이 담긴 병/최양숙 글·그림/이명희 옮김/마루별/2002
- ★ 냐옹이/노석미 글·그림/시공주니어/2008



신시아 라일런트의 다른 책



남마다 남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문학파지성사/2004)



어릴 적 산골에서 (열린어린이/2005)



구스베리 공원의 친구들 (보물창고/2008)



멋진 열두 살 (문학파지성사/2010)

열 두 살 소녀의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그리운 메이 아줌마/신시아 라일런트 지음

/햇살과나무꾼 옮김/사계절/2005년)



신시아 라일런트의 작품은 서정적이면서 따뜻함이 감돈다. 그녀는 세월의 흐름, 죽은 같은 인간이 피할 수 없지만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대표적인 「그리운 메이 아줌마」는 1993년 뉴베리 상과 보스턴 글로브 훈복 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책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소녀와 아저씨의 슬픔 극복과정 이 섬세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서술되어 있다.

주인공 서머는 12살 소녀이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이곳저곳에서 탐탁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눈칫밥을 먹던 아이가 메이 아줌마 부부를 만나 평범한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메이 아줌마가 죽고 유일한 보호자인 오브 아저씨마저 아줌마의 빈자리를 극복하지 못해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한다. 영혼과 대화하고 싶어 하고, 항상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는 아저씨의 행동을 보며 아저씨마저 일찍 돌아가셔서 다시 버림받게 될까봐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서머도 아줌마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속 시원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다 친구 클리터스가 서머의 집을 드나들면서 아저씨가 아줌마의 죽음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갑자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한번은 죽기 때문에 「그리운 메이 아줌마」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 등장하는 사랑 누구도 슬프거나 힘들다고 목 놓아 울지 않지만 담담하게 읊조리는 시선과 문체는 오히려 독자에게 슬픔을 극대화 시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저자는 마치 따뜻한 손으로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해 주는 듯하다. 가까운 사랑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서머와 함께 시원하게 울음을 터트린다면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게 될 것이다.



읽기 포인트

- 등장인물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죽음을 극복하는 과정 살펴보기
- 인상적인 부분 표시하면서 읽어보기
- 정제된 어휘 선택이 주는 아름다움 느껴보기

같은 주제 다른 책 - 가족의 죽음

- ★ 너무 울지 말아라/우치타 린타로 지음/다카스 가즈미 그림/유문조 옮김/한림출판사/2012
- ★ 씹씹해요/전미화 글·그림/사계절/2010

북토크북은 서울초등학교 사서교사 6명의 연구모임입니다.

♣책의 표지 그림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다음 호는 10월 마지막 주에 발행될 예정입니다.